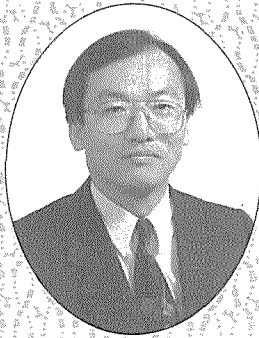


# 북한의 식량사정과 전망



설 충  
〈북한문제 전문가〉

## 1. 머리말

북한 당국은 지난 여름의 수해직후 내부의 취약점을 외부에 노출 시키는 정치적 부담감을 무릅쓰고 인접국가들과 유엔기구 등 국제 사회에 식량난과 수재 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급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 7~8월중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도 일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120만ha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또한 수해로 인한 곡물생산 감소량이 총 190만톤, 식량 저장시설의 파손으로 유실된 식량 63만톤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387만 5천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당국의 피해주장은 북한의 농경지

면적(199.2만ha)과 평시 식량 저장규모에 비추어 상당히 과장된 것처럼 보이나 아뭏든 지난 수해로 말미암아 북한측의 식량난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식량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이미 1980년대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들어 식량생산이 부진을 면치 못하여 해마다 식량이 200만톤이상 부족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상이 외부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같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농업의 파탄원인은 여러가지로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주체농업」의 허구성과 함께 개인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무시한 「협동농

장제』, 비현실적인 분배제도 등 비생산적인 사회주의 농업생산·분배체제로 말미암은 농민들의 생산 의욕 저하 등 북한 농업 체제의 제도적·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2. 농업기반

북한의 농업생산 환경은 남한에 비해 자연·지리적 조건이 불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 경작지 면적은 199.2만정보로서 남한 (203.3만정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북한인구는 2,300만명으로 남한(4,450만명)보다 훨씬 적어 주민 1인당 경지면적 비율을 비교

북한의 경지면적

(1994년 기준)

	총면적	논	구성비	밭	구성비
면적(1,000정보)	1,992	585	29.4%	1,407	70.6%

하여 보면 남한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농업생산조직은 국영농(목)장과 협동농장의 두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협동농장들은 북한 총경지 면적의 90%, 농업생산액의 약 80%를 차지함으로써 북한 식량작물의 생산을 도맡아 왔는데, 북한당국은 농업생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농업생산체제 개편에 착수하여 협동농장들을 『협동적 소유』경영으로부터 『전인민적 소유』(국유)·국영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국영농(목)장과 협동농장은 소유형태, 분배방식, 농장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국영농(목)장들은 연말결산을 통해 생산물을 분배받는 협동농장과는 달리 일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을 뿐 아니라 소득도 협동농장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

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을 내걸고 '60~'70년대 기간중 농촌기술혁명의 4가지 과제, 즉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 수리화 : 제3차 7개년계획 종료년도인 '93년까지 저수지 1,900개소, 양수장 27,000여개, 관개수로 5만km를 조성하여 관개면적이 근 150만정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기계화 : '89년까지 72,000대의 트랙터·연결농기계보유
- 전기화 : '69년까지 농촌지역의 전기화가 완성되어 모든 영농작업을 전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북한의 어려운 에너지 사정에 비추어 농촌의 전기사용은 극히 제한
- 화학화 : 화학비료생산이 단비(單肥) 중심으로 되어 있어 비료의 3요소별 불균형이 심하고, 특히 카리비료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3. 농업생산과 식량수급

북한 당국은 이미 1984년에 「알곡」1,000만톤 생산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제3차 7개년계획이 끝나는 1993년까지는 1,500만톤의 생산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통계가 상당히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식량 통계지표인 「알곡」의 개념이 조곡기준

북한이 발표한 연도별 알곡생산량

(단위 : 1,000톤)

	1946	1973	1974	1976	1979	1984
생산량	1,898	5,344	7,000	8,000	9,000	10,000

으로서 일반적 통계개념인 정곡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실제 곡물생산량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정곡기준으로 평가한 통일원·농촌진흥청의 연도별 북한 곡물생산 추정치는 다음 표와 같다.

북한의 연도별 곡물생산 추이

(단위 : 만톤)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생산량(정곡기준)	481.2	442.7	426.8	328.4	412.5
쌀	193.2	164.1	153.1	131.7	150.2
옥수수	238.0	212.0	211.2	196.3	213.8
기타	50.0	66.6	62.5	60.4	48.5

북한에서의 주민에 대한 식량공급량은 성인 노동자 기준 1일 700g에서 탁아소어린이기준 1일 300g에 이르기까지 직업별, 나이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바, 연간 총소요량은 근 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90년대들어 400만톤 내외를 기록함으로써 해마다 기본적인 식량수요에도 밀도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의 연간 곡물생산량으로는 주민들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가공용, 사료, 종자 및 자연감모분을 감안하면 연간 식량부족량은 200~26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식량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해마다

'90년대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 추이

(단위 : 정곡, 만톤)

	총수요	전년도 생산량	부족량
1991	647	401.3	245.7
1992	650	442.7	207.3
1993	658	426.8	231.2
1994	667	338.4	278.6
1995	672	413	259

다 많은 곡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왔는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유·무상 공여에 의한 식량공급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나머지 부족분은 주민들에 대한 배급량 축소나 사료용·가공용 양곡의 소비절약 또는 비축양곡의 방출 등을 통해 식량 위기를 근근히 버티어 나왔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수해로 인한 곡물수확량 감소 폭이 더욱 커진데다가 과거 북한의 최대 식량지원국인 중국의 대북 지원감소로 식량확보가 다급한 실정에 있었으나, 남한·일본·태국·중국으로부터 총110만톤에 달하는 곡물을 확보하게 되어 일단 급한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 4. 맺는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농업은 인구에 비해 적지않은 경지규모, 광대한 수로, 관개시설망 구축 등 기본적인 생산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식량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농업체제가 안고 있는 제도적,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농업이 단기간내에 생산성을 회복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도 인민공사제도와 같은 집단농장제를 실시하였을 당시에는 식량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나, 1978년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가족경영 농업으로 전환되는 등 농업개혁이 진전됨으로써 식량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이 2.9%(1965~1978 기간)에서 7.6%(1978~1984)로 증가하였다.

북한은 전인민적 소유제, 집단적 협동화의 틀 속에서 개선에 집착하고 있으나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개혁·개방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정책추진은 식량문제를 더욱 어렵게 가져갈 것이며, 결국 북한지도층의 정치적 기반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